

큰성님(伯兄一)은 과양당¹⁾ 셋성님(仲兄一)은 정의(旌義) 서낭당²⁾ 말잣아시(末弟) 대정(大靜) 광정당(廣靜當), 식성제(三兄弟)웹네다.

황바드리³⁾ 짐통경(金通精)이가 들어와 토성(土城)싸고 호호마다 제(灰) 닷웨(五升) 비(箒) 훈 줄리씩⁴⁾ 세금(稅金)을 받아, 토성(土城) 우의⁵⁾ 제(灰)는 깔고⁶⁾ 맑꼴리⁷⁾에 비는 돌아매여 채를 주어 들리니 시상(世上)이 왁왁허여가난⁸⁾ 과양당(廣壤當) 서낭당 광정당(廣靜當) 식성제(三兄弟)가 짐통경(金通精)을 심으레 간다.⁹⁾

짐통경(金通精)이가 무쉐방석을 바당(海)데레 덱겨¹⁰⁾ 날아가 끌아앗이니,¹¹⁾ 수신요왕(四神龍王)은 새의 몸이 뛰여 받석을 심어 둉기니¹²⁾ 이젠 짐통경은 매가 뛰여 날아난다. 과양당(廣壤當) 큰성님(伯兄)이 조롬에¹³⁾조차 올아가 짐총경이가 목을 들른 틈에 비늘 틈으로 찔언 죽입데다.

이젠 식성제(三兄弟)가 활을 쏘와 촌지흘 땅을 갈르는다. 큰성님은 활을 쏘난 정의(旌義) 대정(大靜) 새에¹⁴⁾ 져¹⁵⁾ 정의(旌義) 대정(大靜) 좁¹⁶⁾을 갈르고, 셋성님(仲兄) 쏜 활은 모관(牧內)¹⁷⁾ 정의(旌義) 굽을 갈르고 말잣아신(末弟) 모관(牧內) 대정(大靜) 새엘 쏘아 모관 대정 굽을 갈라, 큰성님은 모관(牧內) 광양당(廣壤當)에 좌정(坐定)하고 셋성님(仲兄)은 정의(旌義) 서낭당 좌정하고 말잣아신(末弟) 대정(大靜) 광정당 좌정허여 모관(牧內) 정의(旌義) 대정(大靜) 촌지흡데다.

- 安德面 倉用里 男巫 高昌鶴 口誦

현용준, 『제주도 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1980, pp.774-775.

1) 제주시 이도동(二徒洞) 소재당(當).

2) 표선면 성읍리의 당.

3) 애월면 고성리(涯月面古城里).

4) 자루씩.

5) 위에.

6) 깔고.

7) 말꼬리.

8) 침침해가니.

9) 잡으로 간다.

10) 던져.

11) 날아가 깔아 앉으니.

12) 잡아당기니.

13) 꽁무니에 . 뒤에.

14) 사이에.

15) 떨어져.

16) 금. 경계.

17) 현 제주시.